

여러 가지 형태의 발코니가 외관을 개성있게 한다. 각 발코니의 형태는 외부에서 본 모습과 가설발판을 연결했을 때의 시공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한 가구의 발코니 면적은 넓은 곳이 약 10㎡, 안쪽 길이가 있기 때문에 6~7인용 방이 1개 더 증가한 것 같은 인상이다.

### 프랑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③

## 차가운 인상의 건물에 인간미를

- 외단열(外斷熱) 개·보수에 병합하여 발코니를 개성적으로

“걸보기에 차가워서 접근하기 어려운 괴물같은 건물을 인간적이고 따뜻함이 있게 바꾸고 싶었다.”

설계자의 한 사람인 베르나·포드씨는 리모델링의 목적중 하나를 이 같이 설명했다.

단열성을 높이는 외벽 개·보


수에 병합하여 가구마다 크기나 형태가 다른 발코니를 새롭게 설치했다. 사람의 시선을 끌어들여 한번쯤 둘러보고 싶게 만드는 친숙함. 동시에 주민이 이 장소를 자신들만의 마을로 의식할 랜드마크(Land Mark)같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외관에 표현했다.

대부분의 발코니 형태는 정방형에 가깝다. 안 길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면적은 넓은 곳이 약 10㎡이다. 사용이 편리하고 면적이상으로 넓게 보인다.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의 주택에 무엇인가를 더 첨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흥미롭다.”라고 포드씨는 말한다. 이 곳에서 바라보는 파리 도심부의 전경을 즐길 수 있도록 확장시킨 발코니 형태 등에 구애 받았다.

포드씨는 “이렇게 한가지 생각으로도 삶의 질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발코니를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주민과 대화의 탄력이 생기면 일상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도 기대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커다란 발코니를 사이에 두고 왕래하거나 최상층의 몇몇가구의 벽을

제거하여 테라스와 같이 바꾸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그러나 형태가 너무 복잡하여 비용 문제로 실현되지 않았다. <外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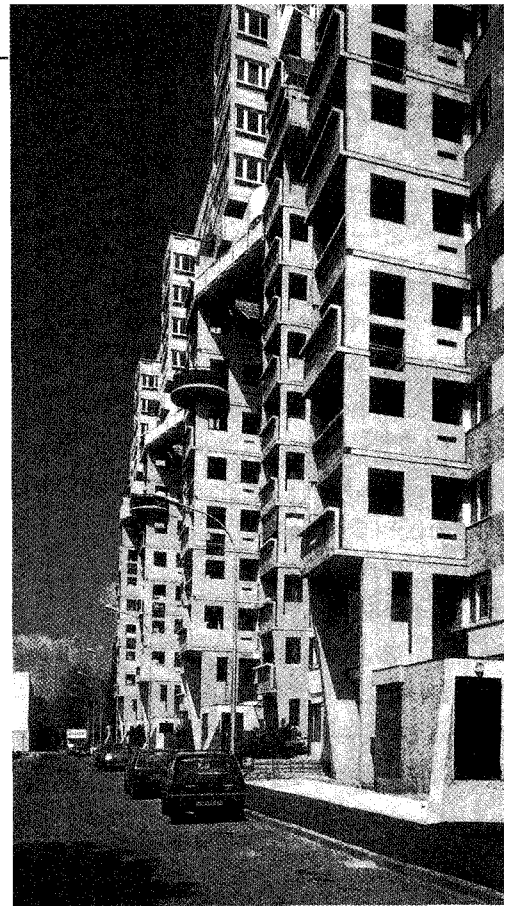
### 설계자의 리모델링 관점

#### ‘그곳에 있는 건물을 인지 경의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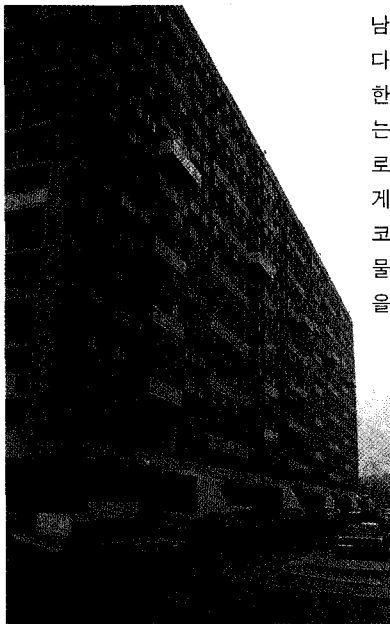
기존의 건물에 현대의 기술을 구사하여 새로움을 가미하고 별도의 공간을 창조한다. 이러한 작업을 전제로 대상 건물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베르나·포드)

#### ‘지금까지의 장소에 계속 살고싶은 행복감’

전부터 살고있던 사람에게는 역시 애착이 있다. 그런 장소에서 보다 쾌적한 삶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할 만족감이 있다.(크로드·투우텔)



개·보수전의 외관. 고층부에 피난용의 폭이 좁은 발코니가 있는 것 외에는 외벽에 눈에 띄는 요철이 없다. 남북방향의 건물길이는 약 130m나 되는데, 동서방향은 약 10m로 거대한 장벽같았다고 한다.



남쪽에서 서쪽면을 올려다 본 모습. 백색으로 칠한 강제의 통로처럼 보이는 부분은 피난용 발코니로 세군데 설치했다. 붉게 칠한 둥근 형태의 발코니도 두군데 설치. 건물 외관에 독특한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공사중 발코니 내부. 고층부는 강한 바람이 불 때도 있기 때문에 창을 설치해서 방처럼 만들었다.